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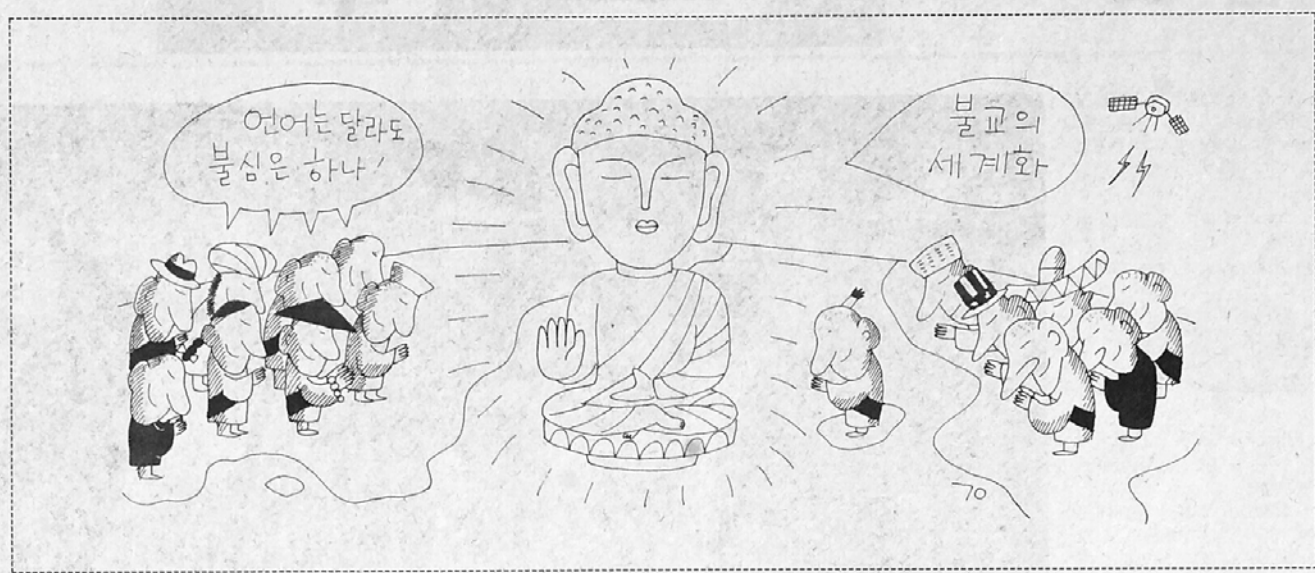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포교 현황

해외에 건립된 한국사찰은 모두 1백86곳이다. 지역별로 미국 106, 캐나다 9, 아르헨티나 3, 브라질 1, 스위스 1, 스페인 3, 영국 1, 독일 2, 폴란드 9, 체코 1, 러시아 1, 유고 1, 우크라이나 2, 우즈베키스탄 1, 키르기스스탄 1, 헝가리 1, 일본 33, 중국 1, 인도 2, 홍콩 2, 싱가포르 1, 스리랑카 1, 남아공화국 1, 호주 2곳 등이다.

미국에서 12만명의 구족자를 확보하고 있는 불교전문지 트라이사일클에 나오는 사찰 규모 총 127곳을 살펴보면 한국계사찰은 5곳에 불과하다. 또한 작년 영국에서 발행된 불교단체 주소록에 수록된 273개 단체에서 한국계는 찾을 수 없다. 이는 한국불교의 해외포교현황을 상당부분 대변해 주는 통계다.

100여년전 국력의 쇠진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원인으로



기간의 지리, 문화적 단절로 민족간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가는 실정임을 알고 스님은 심양에 백산사를 설립 한민족의 예절교육 및 민족문화강화를 개설하는 등 한국인의 정신회복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가불자 연합회에서는 이 지역에 문화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연변은 한민족의 정기가 발원하는 백두산을 남쪽에 두고 동으로는 연해주와 남으로는 두만강과 접하는 지역이다. 현재 8개 시현으로 구성된 조선족자치주의 총인구는 1백 97만명이고 이 중 81만명이 조선족이다.

역사적으로 고구려, 발해의 문화가 융성했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개척지역으로 남아있었으나 간도협약으로 일본이 임의로 영토를 청나라에 넘겨준 후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의 근거지였던 만큼 연변은 우리 민족의 정기가 깊이 스며있는

세계속 한국불교

사찰·포교사 '절대 부족'

절 70% 산중에 몰려... 수용 공간 한계

1백86사찰 "목탁소리" 60%美집중...교포위주 운영

이민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불교도 함께 나갔지만 교포사회에서 불교가 조직화된 것은 최근 몇십년에 불과하다. 현재 전세계에 2천4백17명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는 기독교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불교포교의 소극적 일면이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말해준다.

그러나 종단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능력 또는 교포사회의 자생적 움직임에 의하여 외국에 한국사찰이 건립되어왔다. 이들 사찰을 중심으로 한국불교는 교포사회의 불자들 사이에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을 향한 불교 포교라기 보다는 한국인 지향의 불교였다. 집에서 진정한 의미의 해외포교라고 할 수 없다.

현재 서구사회는 기독교중심문화가 초래한 여러가지 병폐에 직면하여 있으며, 그 돌파구로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구 소련 및 동구지역은 종교적 억압상태에서 벗어난 종교적 진리를 구하려는 열원이 뜨거워져 있다. 그러나 서구사회에 불교를 알리는 행보는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라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포교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수치·분석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하회중생의 차원에서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소극적인 포교방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수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선교에 나서서 기독교와 비교할 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에서 발표한 한국 종교현황을 보면 1994년 현재 불교 사찰은 총 1만 6백34개, 승려는 3만 8천 111명이다. 이에 비하여 교회는 총 4만 2천 5백 89개, 교직자 수는 8만 2천 5백 5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4년 통계

에서 발표한 15세 이상 종교인구의 비율은 불교인 24.4%, 기독교인 18.2%, 천주교인 5.9%로 집계되어 기독교계의 비율은 24.1%로 불교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불교포교의 문제는 신도수에 비하여 불교를 수용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신도를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신도를 확보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할 포교종사자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표 참조)

70%이상의 사찰이 대도시 근교를 벗어난 산중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이 집주변의 사찰을 통하여 불교에 접하기는 아직 쉬운 일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불법 홍보의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바로 연변불학원의 사적복구 및 불학연구 작업, 도문시 불교협회에서 복원한 화엄사, 간각종의 심인당 설립 추진 및 백산스님의 문화운동, 재가불자연합회 문화관 설립

북한전범 가교 역할 도문 불교협 설립계기 활기

계획 등이 연변포교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연변불학원은 연변지역의 한민족불자들이 원력을 모아 지역불교연구와 불교신앙으로 동포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문화향상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이래 1994년 5월 12일에는 중국 인민정부로부터 정식 인준을 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1993년부터 정암스님과 도문시 불자들 사이에 인연이 맺어지면서 1994년 3월에는 조선족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대중불교단체인 도문시 불교협회가 설립되었고 이 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사찰인 화엄사를 복원하여 조선족스님인 고도스님을 주지로 모시고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간각종에서는 연변포교와의 인연이 닿으면서 흥룡강성에 있는 교포집을 심인당으로 활용, 포교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현재 교당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곧 불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백산스님(모충사주지)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의 문화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지역의 한민족이 오랜

◇ 종단별 포교당·포교사수

종단명	사찰수(교당)	승려(교직자)	포교사
조계종	1,694개	10,056명	4,000명
태고종	2,455개	4,708명	1,251명
천태종	140개	457명	
진각종	118개	254명	

◇ 6대도시 사찰 분포

종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조계종	215	211	69	21	15	34
태고종	356	42	54	56	26	29
천태종	6	3	2	1	1	1
진각종	13	10	18	1	5	

자·유·를·꿈·꾸·는·이·들·에·게·보·내·는·한·구·도·자·의·푸·른·노·래

총각스님, 요즘 뭐하세요?

헤민스님 자음

헤민스님, 창가 가세요!

기도를 잘하는 젊은 총각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의 영불사라는 가람날 보름달 같아서 숙연의 세월이 떠든 사람들의 입장을 넘어 내리는 신묘한 일이 있었답니다. 누구나 그 스님의 영불을 들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똑같은 스님의 영불인데 어쩌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살이는 번민과 한숨의 집초들이 실새이 올라오는 것이어서 마음이 몹시 심란한 때가 많습다. 심란한 세상살이의 때를 벗어내고자 그날도 그 절을 찾아 올라온 여선도가 있었습다.

그런데 어쩌면 알인지 그날은 그 총각 스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스님의 아픔도 몰랐으므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노승님이 그 말을 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얽은 노승님을 불러 세웠습다.

"노승님, 자넨 영불 잘하니 그 총각 스님이 보이지 않네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러자 노승님께서 그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미, 나는 총각 스님 아닌가." (본문 중에서)

들녁 서울 미포구 동교동 158-6 TEL. 337-0296-7 FAX 338-9640

1995년 동림 동문회 정기총회

마는 말씀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람 수호와 수행 정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며 석탄 봉축 행사 준비로 공사다망하시겠습니까. 불보살님의 크신 가피력으로 모든 일 원만히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95년 동림동문회 정기총회와 5기 동문 환영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보고싶은 얼굴 동문회에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1995년 5월 11일 오후 5시 30분

장소 남산 타워 호텔(본관1층) 젤코바 홀 전화 (02) 236-2121 (교) 291

회비 3만원 (기념품 증정)

불기 2539년 4월 21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
 회장 성웅 합장

본부: 남장사(경북 상주시 남장동 502) ☎ (0582) 31-0047 / 서울사무소: 능인정사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230-8 ☎ 462-1335